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공학 논문에 나타난 수사기법의 비교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자 연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공학 논문에 나타난 수사기법의 비교

정 소 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자 연

인 준 서

이자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윤 태 진 (인)

심사 위원 정 소 우 (인)

심사 위원 고 정 민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한국인과 영어권 학자들이 영어로 작성한 공학 학술지 논문 서론의 수사학적 특성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교육기관에 소속된 영어권 저자의 논문 30개, 한국인 저자의 논문 30개, 총 60개의 공학 학술지 논문을 최종 연구 자료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서론 전체의 수사기법상의 유사성 및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위하여 Swales(2004)의 수정 CARS Model(revised Create-A-Research-Space Model)을 도입하였으며 이 모형을 토대로 60개의 논문의 어떠한 이동마디(move)에 해당하는지 전반적인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논문에서 각 문장이 어떤 단계(step)에 해당하며 각 이동마디(move)가 어떠한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이동마디의 구조 및 수, 각각의 이동마디의 수, 하위단계 및 분포 등의 통계 자료를 얻었다.

연구 결과, 모든 논문이 Swales가 제안한 CARS 모형의 일반적인 구조인 이동마디 1-이동마디 2-이동마디 3의 순서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개별 논문의 저자가 문장을 기술함에 있어서 수사학적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이동마디들을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권 저자의 논문과 한국인 저자의 논문 모두에서 이동마디 1과 3은 필수적인 요소로 확인되었고, 이동마디 2의 경우는 다수의 논문에서 결여되어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두 집단의 논문을 각각 전체 이동마디의 개수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나열하였을 경우 영어권 저자의

논문과 한국인 저자 논문의 순서는 이동마디 1-이동마디 3-이동마디 2의 순서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의 저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이동마디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계 및 하위 단계의 수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숫자가 많은 순서로 나열했을 경우에는 각 집단이 선호하는 단계 및 하위단계의 순서에 차이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집단의 저자들이 선호하는 단계 및 하위단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영어권 저자 집단과 한국인 저자 집단의 학술적 글쓰기에는 일정한 수사학적 기법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문화가 다른 만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전반적인 글의 구조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각 집단 별로 선호하는 단계상의 차이는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영어 학습자들이 학술적인 목적의 글쓰기를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형식과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영어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육자들이 영어권에서 요구되는 수사기법의 특징을 안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이론적 배경	3
1.2.1. 장르의 정의와 활용	3
1.2.2. Swales의 연구논문에 대한 이동마디 분석	5
1.2.3. 선행연구	9
1.3. 연구목적	12
II. 연구방법	14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4
III. 연구결과	20
3.1. 영어권 저자 논문	22
3.1.1. 이동마디의 배열 구조	22
3.1.2. 영어권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구성	27
3.1.3. 이동마디 1	30
3.1.4. 이동마디 2	31
3.1.5. 이동마디 3	32
3.2. 한국인 저자 논문	34

3.2.1. 이동마디의 배열 구조	34
3.2.2.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구성	38
3.2.3. 이동마디 1	41
3.2.4. 이동마디 2	41
3.2.5. 이동마디 3	42
3.3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서론 구성에 관한 비교	44
IV. 결론 및 제언	49

참고 문헌

ABSTRACT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세계의 수많은 언어 중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인구, 즉 언어인구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언어인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어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약 3.2억명)에서 모국어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국어는 아니지만 제 2언어로써 사용하는 인구(약 1.5억명)까지 합한다면 영어의 언어인구는 약 4억 7000만이다. 이러한 수치화된 통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오늘날처럼 국가 간의 거리가 무의미해진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 공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영어를 배워 왔지만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환경에서 영어를 학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사소통 중심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예전보다는 영어 구사 능력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규 대학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영어로 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단순히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정규교육과정은 어휘 문법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으로 이루어져 시험을 보기에는 적합하나 한 분야의 전문가인 자신의 전공 학문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술적인 글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EFL환경에서 외국어로 배운 국내의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전공학문의 지식과는 별개로 영어로 논문을 작

성하기 위한 학술적 목적의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 EAP)를 익혀 형식과 특성에 맞는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각 전공과목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어휘의 사용과 문장의 구조 및 전체적인 글의 맥락 등이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영문 쓰기 학습을 위해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영어 사용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참고로 하여 영문 쓰기를 학습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의 사용에는 언어 사용자의 사고 체계가 반영되므로 각 언어 사용자들의 글에는 각기 다른 문화적 사고 유형(cultural thought pattern)이 나타난다(Connor, 1996; Connor & Kaplan, 1987; Kaplan, 1996).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같은 전공이라 할지라도 영어권 전공자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운 한국인 전공자는 오랫동안 각자의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특정 언어적, 문화적 사고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크므로 그에 따른 사고 체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간에는 같은 분야의 글을 쓸 때에도 사용언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영어논문의 서론을 분석하여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논문의 서론에 나타난 수사학적 특성 및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의 서론은 대부분 논문의 전체 내용과 학문적 특성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특징적인 글이므로 학문적 목적의 글쓰기를 위한 자료로 적합하다고 보았고 저자 간에 존재하는 사용 언어의 차이를 비교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논문 서론의 비교분석을 통해 특정 학문연구에서 요구되는 고유한 글쓰기 방법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처음 영어로 논문을 쓰는 한국인 대학원 학생이 좀 더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영문 글쓰기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특정 학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나 비학문적인 표현 등을 지양하여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

견을 피력할 수 있는 영문 글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2. 이론적 배경

1.2.1. 장르의 정의와 활용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장르의 개념과 장르 분석에 관한 이론적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장르의 사전적 의미는 ‘문예 양식의 갈래. 특히 문학에서는 서정, 서사, 극 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로 나눈 기본형을 이른다.’이다. 따라서 특정 문학 분야의 목적에 맞는 어휘, 수사 기법 등의 언어적, 수사적 특성을 장르라고 이해할 수 있다.

Hymes(1972)는 장르란 시, 설화, 기도문, 연설문, 상용문 등의 범주로서 고유 형식적 특징을 갖는 언어행위의 한 구성성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원론적인 장르의 개념이 좀 더 확대되고 구체화되었음을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알 수 있다.

Swales(1990)는 장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A genre comprises a class of communicative events, the members of which share some set of communicative purposes. These purposes are recognized by the expert members of the parent discourse community, and thereby constitute the rationale for the genre. This rationale shapes the schematic structure of the discourse and influences and constrains choice of content and style. Communicative purpose is both a privileged criterion and one that operates to keep the scope of a genre as here

conceived focused on comparable rhetorical action. In addition to purpose, exemplars of a genre exhibit various patterns of similarity in terms of structure, style, content and intended audience(Swales, 1990:58).

Swales(1990)에 이르면 장르란 의사소통 목적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적 활동이며 그 의사소통 목적은 해당 공동체의 전문가집단에 의해 인정된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보았다. 또한 이러한 합리적인 근거는 도식적인 구조를 형성하여 담화의 내용과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장르의 개념은 Swales와 같은 언어학자들의 언어학적인 해석을 통해 의사소통적 목적의 제 2언어 교육, 특히 특수 목적 영어 교육(English for Specific Purpose; ESP)분야에 널리 영향을 끼쳤다. ESP 분야에서의 장르 연구는 1980년대부터 학술적 텍스트에 대한 장르분석 연구를 정리한 Swales(1990)에 의해 본격화 되었다. 최연희(2008, 2010)에 따르면 장르분석이란 특정 장르의 글을 수사학적 기능과 글의 구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글의 구조와 수사학적 기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특정 장르의 글에 나타난 특성들을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wales(1981)는 최초로 과학 분야 연구 논문을 장르 분석하여 수사학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4-moves’ 모형이라는 연구 논문 서론의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 모형의 형태를 수정, 보완하여 연구 논문 서론의 대표적인 모형인 연구 공간 창조 모형(Create-A-Research-Space model: 이하 CARS 모형)을 확립하였다. CARS 모형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2.2. Swales의 연구논문에 대한 이동마디 분석

Swales(1981, 1990)는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수많은 의사소통적 상황이 장르 분석이라는 장치를 통해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학술적 목적의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 EAP)로서의 글쓰기를 분석하는 도구로 장르 분석이라는 분야를 제안하여 텍스트의 수사학적인 특성을 이해하였다. 그는 학술논문이라는 장르 중에서도 서론 부분의 구조를 분석하여 대학정규 과정을 마친 높은 수준의 비영어권 학생과 다양한 학술저널에 논문을 신고자하는 전문 직업의 비영어권 화자들의 글쓰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오늘날 이 분석 방법은 여러 학술적 목적의 영어 글쓰기 관련 연구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Swales(1981)는 장르 분석을 ‘이동마디(Move)’와 이동마디의 하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Step)’의 분석이라고 하였다. Sheldon(2011)에 따르면 이동마디와 단계는 장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서 학술논문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적인 목표에 맞추어 특정한 의사소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화된 순환형식이라고 정의된다.

Swales(1981)의 첫 번째 연구로부터 그는 네 가지 이동마디를 포함하는 일련의 수사학적 구조를 발견하였는데 이 초기 형태는 ‘4-moves’ 모형이라고 정의하였다. ‘4-moves’ 모형은 다음과 같이 M1(이동마디 1, move 1), M2(이동마디 2, move 2), M3(이동마디 3, move 3) 그리고 M4(이동마디 4, move 4)로 분류 되었다.

표1. Swales의 ‘4-moves’ model(1981)

Move 1	establishing the field
Move 2	summarizing previous research
Move 3	preparing for present research
Move 4	introduction present research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는 다른 학자들(Lopez, 1982; Crooks, 1986)에 의해 텍스트의 분석에 있어서 M1과 M2를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M1과 M2의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 Swales(1990)는 '4-move' 모형을 수정하여 수사구조 측면에서 세 가지 이동마디로 구성된 모형을 발표하였고 이를 연구 공간 창조 모형(Create-A-Research-Space model, CARS model)이라고 명명하였다.

표2. Swales의 Create-A-Research-Space model(1990)

Move 1	Establishing a research territory
Step 1	Claiming centrality
Step 2	Making topic generalization
Step 3	Reviewing items of previous research
Move 2	Establishing a niche
Step 1A	Counter-Claiming
Step 1B	Indicating a gap
Step 1C	Question-raising
Step 1D	Continuing a tradition
Move 3	Occupying the niche
Step 1A	Outlining purposes
Step 1B	Announcing present research
Step 2	Announcing principal findings
Step 3	Indicating RA (Research Article) structure

Swales(2004)는 기존의 CARS 모형을 수정하였는데 수정된 모형도 논문의 서론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동마디를 포함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세 가지 이동마디를 각각 M1, M2, M3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수정 연구 공간 창조

모형(revised Create-A-Research-Space model, revised CARS model)이라고 하였다.

Swales의 CARS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어 연구 논문 서론의 장르분석을 연구한 김영규, 이은하(2008)에 따르면 M1은 ‘연구 영역 확립하기’로서 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M2는 ‘연구의 정당성 확립하기’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M3은 ‘연구의 정당성 점유하기’로서 앞서 정립한 연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연구의 목적과 특징을 명시하는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동마디는 그의 하위개념인 단계(step)를 포함하는데 M1의 경우 3단계가 존재한다. 단계1(step1, 이하 S1)은 ‘중요성 주장하기’, 단계2(step2, 이하 S2)는 ‘연구 주제 일반화하기’, 단계3(step3, 이하 S3)은 ‘이전 연구 항목 검토하기’가 그것이다. M2의 경우, 단계는 1개이고 4개의 하위 단계;S1A ‘반대주장하기’, S1B ‘격차 나타내기’, S1C ‘문제점 제기하기’, S1D ‘전통의 연속성’로 구성되어 있다. M3은 S1A, S1B, S2, S3, 즉, 단계1에 2개의 하위단계가 존재하고, 별개로 2개의 단개가 더 존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S1A는 ‘연구 목적의 개요’를 나타내고, S1B는 ‘본 연구 소개’를 나타낸다. S2는 ‘주된 결과 나타내기’를, S3은 ‘연구 논문 구조 소개’를 나타낸다.

이러한 Swales(1990)의 CARS 모형을 기반으로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분석되었고 Swales 자신도 CARS 모형이 거의 모든 구조의 연구 논문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가령 말하자면, 이동마디의 경계가 의미론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동마디의 경계를 정하는 명백한 규칙이 결여되었고 (Paltridge, 1994),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Brett, 1994; Hopkins & Dudley-Evans, 1988; Samraj, 2002)는 것 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Swales(2004)는 수정 CARS 모형을 제안하였다. 수정된 모형은 1990년에 제안된 모형과 비교하여 수정 및 보완점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M1의 하위 단계가 사라지고 하나의 이동마디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M2에 대해서는 4개의 하위단계를 줄이고 2개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M3은 ‘본 연구 나타내기’라고 새롭게 명명하였으며 7개의 단계와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 S1은 의무적이고, S2~S4는 선택적이며, 나머지 S5~S7은 몇몇 연구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정의는 아래의 표로 대신한다.

표3. Swales의 수정 Create-A-Research-Space model(2004)

Move 1	Establishing a territory (연구 영역 확립하기)
	Topic generalizations of increasing specificity
Move 2	Establishing a niche (연구의 정당성 확립하기)
Step 1A	Indicating a gap (격차 나타내기)
Step 1B	Adding to what is known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한 추가 내용)
Step 2	(optional)Presenting positive justification (연구의 정당성 제시)
Move 3	Presenting the Present Work (본 연구 제시하기)
Step 1	(obligatory)Announcing present research descriptively and/or purposively (본 연구소개)
Step 2*	(optional)Presenting RQs or hypotheses (연구 문제 또는 가설 제시하기)
Step 3*	(optional)Definitional clarifications (명확한 정의 제시)

Step 4*	(optional)Summarizing methods (방법에 대한 요약)
Step 5	(PISF**)Announcing principal outcomes (주된 연구결과 제시)
Step 6	(PISF)Stating the value of the present research (본 연구의 가치 제시)
Step 7	(PISF)Outlining the structure of the paper (논문의 구조 제시)

* Steps 2-4 are not only optional but less fixed in their order of occurrence than the others

** PISF: Probable in some fields, but unlikely in others

CARS 모델에서 각 이동마디는 글쓴이의 목적과 함께 의사소통적 기능을 담당한다(최연희, 2009). Swales(2004)는 CARS 모델을 통한 장르분석을 토대로 학술 논문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의사소통적 특성들을 이해하여 수사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비영어권 학습자들의 학술적 목적의 영어 글쓰기 연구에 효과적인 교육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2.3. 선행연구

ESP 분야의 장르 분석 연구는 Swales(1981)를 시작으로 체계화되고 본격화되어 다양한 연구들이 오늘날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의 선행연구에서는 ESP 분야의 장르 분석 연구 중에서도 CARS 모형을 토대로 학술적 텍스트의 수사학적인 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한 연구는 크게 원어민 저자가 작성한 학술적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와 원어민 저자와 비영어권 저자의 학술적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 둘로 나뉜다. 먼저 원어민 저자의 학술적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에는 Kwan(2006), Najjar(1990), Fredrickson & Swales(1994), Ahmad(1997) 등이 있다.

Kwan(2006)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저자의 응용언어학 분야 박사 학위 논문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논문의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이하 LR)와 서론 부분을 수정 CARS 모형을 사용하여 장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동마디의 구조는 대부분 CARS 모형을 따르고 있었고 하위구조인 단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Najjar(1990)은 아랍어로 기술된 48개의 농학 연구 논문의 서론을 연구 자료로 삼아 CARS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48개 논문 중 27개의 논문이 CARS 모형을 따르고 있었으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23개 논문에서는 M2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연구의 정당성 확립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Fredrickson & Swales(1994)는 스웨덴어로 기술된 26개의 학술지 연구 논문을 CARS 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14개의 논문만이 CARS 모형에 부합하는 3개의 이동마디를 가지고 있었고, 12개의 논문은 1개 혹은 2개의 이동마디를 아예 가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도 M2가 결여된 논문이 가장 많아 9개나 되었다. 이에 대해 Fredrickson과 Swales는 연구공간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Swales(1990)가 말한 바 있는 의사소통 목적을 공유하는 담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어로 기록된 21개의 자연과학 연구논문의 서론을 분석한 Ahmad(1997)의 연구에서도 21개 중 15개의 논문에서 M2가 나타나지 않았다. Fredrickson과 Swales와 마찬가지로 Ahmad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연구 공간 경쟁의 결여 때문이며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저자의 수사학적 특성에 비해 애매모호하게 기술하는 말레이시아 저자의 수사학적 구조의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언어로 기술된 많은 연구 논문들이 Swales의 CARS 모형을 토대로 분석되었는데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술된 연구 논문은 영

어로 기술된 연구논문에 비해 3개의 이동마디 중 M2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수사학적 구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직설화법을 선호하는 영어에 비해 예둘러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해당 언어의 문화적 영향이 학술적 텍스트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원어민 저자와 비원어민 저자의 학술적 텍스트 혹은 다른 두 언어의 학술적 테스트를 분석한 연구에는 Anthony(1999), Lee(2001), Cameron(2011), 허미혜, 정소우(2016) 등이 있다.

Anthony(1999)는 12개의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학술지 연구 논문을 수정 CARS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연구의 자료가 되는 논문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저자와 비원어민 저자가 영어로 작성한 논문을 구분하지 않고 'best paper'로 선정된 논문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논문이 CARS 모형의 이동마디를 따르는 경향을 보였으나 하위 구조인 단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항목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저자와 미국인 저자의 수사학적 구조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116개 논문의 서론을 CARS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Lee(2001)는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이 CARS 모형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ee는 CARS 모형에 따른 수사 구조분석에 그치지 않고 다른 언어적인 특성들도 비교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학한 저자들은 미국에서 수학한 저자와 미국인 저자에 비해 적은 인용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선행연구 분석 시에도 덜 비판적인 화법을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의견보다는 자료의 알려진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허미혜, 정소우(2016)는 경영학 분야의 학술지 논문의 서론을 한국인 저자와 영어권 저자로 나누어 수집하고 CARS 모형을 기반으로 수사기법을 비교하였는데 연구 결과 두 그룹 모두 3개의 이동마디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CARS 모형을 따르고 있었고 공통적으로 M2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허미혜, 정소우(2016)에 따르면 영어권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가 더 복잡하고 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의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 반해 영어권 저자의 논문은 자신이 앞으로 다루기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등 미래지향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위 선행 연구들로 미루어 보아 두 언어 집단 사이에는 문화적 영향에 의한 사고의 차이(Connor, 1996; Connor & Kaplan, 1987; Kaplan, 1996) 및 논리 전개에 차이가 있어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저자들은 다른 언어 사용 저자들에 비해 연구 논문의 서론에서 보다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3. 연구목적

1980년대 이래로 학술적 목적의 영어교육(English for Academic Purposes)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짐에 따라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를 위한 영어 교육을 위해 학술적 텍스트 분석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Lee, 2001b). 또한 최근에는 대학에서 쓰기 교육이 인문·사회·과학 등 계열별로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고 전공에 따른 좀 더 전문화된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이명실, 2008).

본 논문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저자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권 저자가 작성한 공학 학술지 논문의 서론이라는 실제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진 저자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영어로 작성한 해당 텍스트의 수사학적 기법에는 어떠한 구조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조적인 비교를 위해 문장 단

위로 이동마디와 단계 및 하위단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론 전체의 전반적인 수사기법의 형태를 파악하여 영어권의 저자가 선호하는 수사기법의 양상과 한국인 저자의 논문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주된 목적인 각 집단의 수사기법상의 비교와 동시에 나아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공학 관련 학부 및 석사 과정의 영어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논문쓰기와 같은 학술적 목적의 영어 글쓰기에 교육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집단에서 작성한 60개의 공학 학술지 논문을 주된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Swales(1990)와 박은선(2006), Yang & Allison(2003) 그리고 김영규, 이은하(2008) 등에 따르면 본 논문에서 분석의 토대로 삼고 있는 Swales의 CARS 모델은 이론적 연구 논문 보다는 실험적 연구 논문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분석도구라고 하였기 때문에 실험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실험적이고 실증적인 공학 논문이 연구 자료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공학은 학문 분야가 매우 넓어 공학 안에서도 여러 세부 전공으로 나뉘는데 특정 세부 전공을 택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수집하려 노력하였다. 연구의 집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의 대학에서 연구하는 영어권 학자와 한국의 대학에서 연구하는 한국인 학자라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영어권 논문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저자의 논문으로 이루어 졌고 한국인 논문은 제 2 언어로서의 영어로 작성된 논문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자료로 삼은 논문의 출처는 현존하는 총 23개의 해외 간행물에서 제공된 공학 관련 학술지이며, 온라인 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되었고, 분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다. 영어권 논문은 각각 Journal of Power Sources(3개), Journal of International Council on Electrical Engineering(1개), Microelectronics Reliability(1개), Renewable Energy(1개), Microelectronic Engineering(7개), Electric Power Systems Research(6개),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1개), Energy Policy(1개), Mechanical Systems and Signal Processing(1개), Automotive Engineering(1개), Electrochimica Acta(4개),

Automatica(1개), Renewable Energy(1개), Innovative Technologies(1개), Engineering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1개), The Journal of Navigation(1개), 총 16개 간행물에서 수집하였으며 논문의 수는 30개이다. 한국인 논문은 각각 Journal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and Systems(6개),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6개), Journal of International Council on Electrical Engineering(6개),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4개),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Journal(2개), Journals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5개),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1개), 총 7개 간행물에서 수집하였으며 전체 논문의 수는 30개이다.

표4. 영어권 저자 논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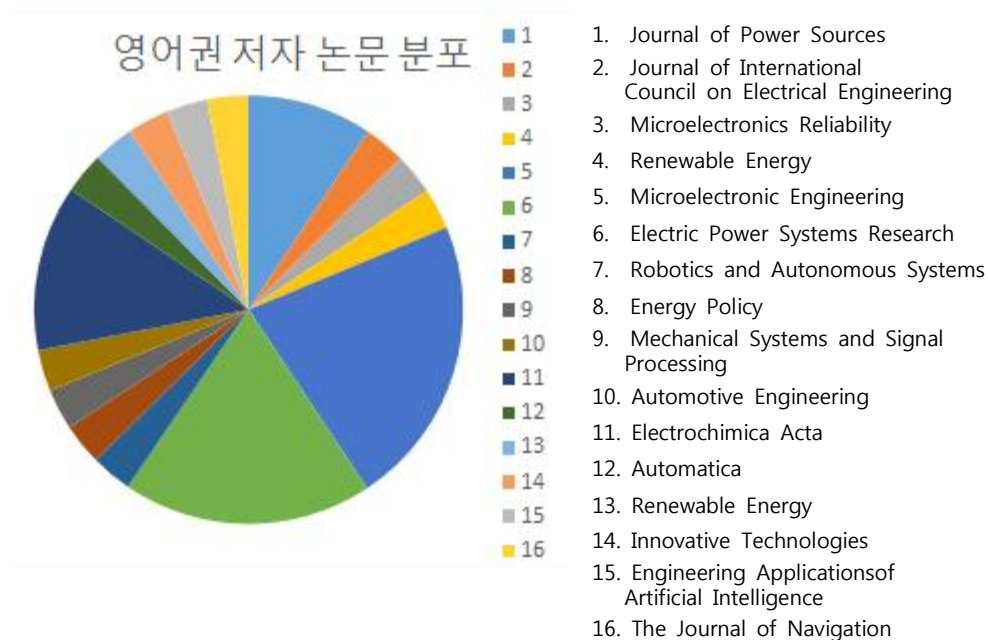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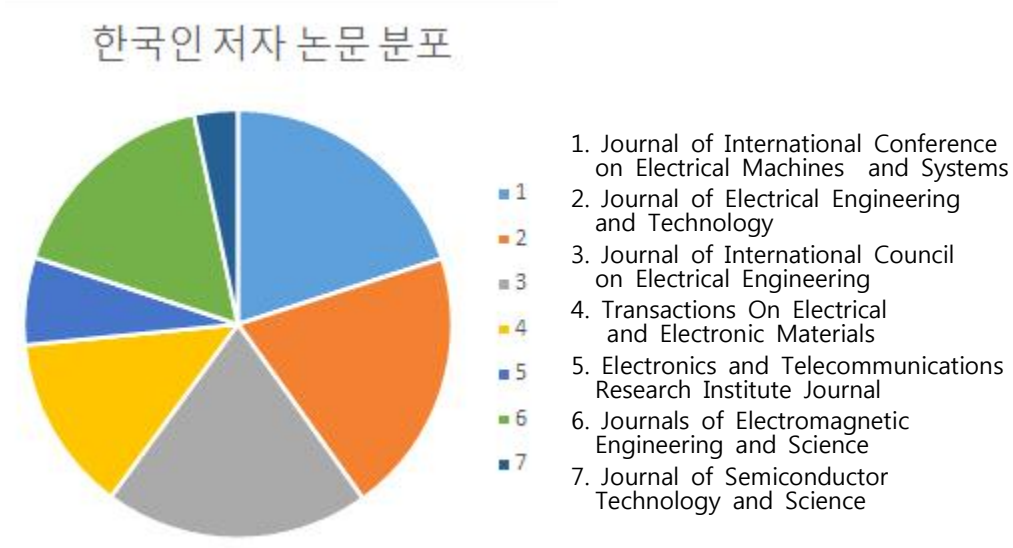


표5. 한국인 저자 논문 분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사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Kaplan, 1966) 최신 경향의 반영을 위해 2014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간행물의 경우 특별한 기준을 통해 선정하지 않고 기간만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으며 특정 학술지의 사상이나 경향성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로 다양한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 나타나는 수사 구조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Swales의 CARS 모형을 분석 도구로 논문의 서론을 분석하였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서론의 각 문장이 이동마디1, 이동마디2, 이동마디3 중 어디에 속하는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하였다.

예1. 영어권 논문 분석의 예시

<M1S1>Technology and decision support needs for safe waterways navigation have been studied for many years. <M1S1>Decision aids designed to improve

the safety of navigation and supporting the cognitive skills of piloting - manoeuvring, collision avoidance, and the practice of good seamanship - have been developed (Grabowski and Wallace, 1993), some as standalone systems, some embedded within an Integrated Bridge System (IBS) or an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Kristiansen et al., 1989; Grabowski and Sanborn, 2003), and some electronically linked to existing bridge equipment, Automatic Radar Plotting Aids (ARPAs), to the 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 (AIS) (Gould et al., 2009), or to 3D ECDIS systems (Goralski et al., 2011).

(중략)

<M3S1>This paper addresses the second challenge, the need to assess the impact of immersive technology on safe and effective marine transportation.

<M3S1>It was motivated by our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new immersive technology introduction on safety and on users in the marine transportation system. <M3S2>Several types of questions are therefore of interest: first, what contributions to navigation decision-making might be made by WIAR technology? <M3S2>And second, how do these influences relate to safety in marine transportation?

<M3S7>The next section begins with an overview of decision support for shipboard navigation, including the emergence of WIAR systems. <M3S7>An assessment of piloting and navigation information needs and the capabilities of WIAR are then presented, which suggests a conceptual model for evaluating the impact of WIAR systems on performance and safety in marine transportation.

<M3S7>Conclusions and future work to explore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WIAR technology to the safety of navigation are then presented.

예2. 한국인 논문 분석의 예시

<M1S1> Today the use of electricity is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es and vehicles with internal combustion engine are rapidly increasing for convenience of travel. <M1S1> To produce electricity and drive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ssil fuels must be used, causing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M1S1> These days many people are making efforts to reduce CO₂ which is the main culprit for the destruction of global environment. <M1S1> In particular, as vehicles account for over 50% of the CO₂ emissions, active efforts to reduce them are being made all over the world. <M1S1> Typical examples of such efforts are the improvement of fuel economy and the introduction of electric vehicles. <M1S1> Recently, hybrid vehicles that use both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electric motor have been developed with effective improvement of fuel economy.

(중략)

<M2S1A> However, since such high voltage power supply systems have such problems as electric shock, systems like NEV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use low voltage batteries of maximum 70 V. <M2S1B> Due to safety and efficiency issues, batteries are using low voltage while motors use high voltages. <M2S2> Thus,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boost DC/DC converter with at least 4-fold boosting efficiency[3][4]. <M2S2> Furthermore, an insulation-type converter needs to be developed to address the electric safety issue. <M3S1>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an insulated DC/DC converter that uses a voltage multiplier circuit composed of diodes and condensers at the output for high voltage multiplication, in particular, a new insulation-type DC/DC converter with a serial connection of two voltage multiplier circuits for 4-fold boosting.

(중략)

<M3S4>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insulated DC/DC converter using a voltage multiplier circuit, a simulation was conducted using PSIM, and the real converter was fabricated and tested. <M3S5> It was found that up to 4-fold boosting was possible with the voltage multiplier circuit and a serial

circuit only with no separate control, and the maximum efficiency of the converter was very high at around 9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마디를 기준으로 분류된 각각의 문장들은 단계와 하위단계로서 좀 더 세분화 하여 분류하였다. 분류된 모든 문장은 이동마디, 단계 및 하위단계를 문장 앞에 기입하여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로 나누어 각각의 전체 이동마디의 개수에 대한 통계자료와 각각의 이동마디의 개수에 대한 통계자료, 그리고 각 이동마디와 그의 단계 및 하위단계에 관한 통계자료가 얻어졌다. 분리된 두 그룹의 자료는 수사구조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1장에서 언급한 Swales(2004)의 수정 CARS 모형을 연구 도구로 하여 얻어진 결과로서, 이동마디의 분석을 통해 수사기법상의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서론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한 문장이 하나의 단계 또는 하위단계에 해당하여 그 개수나 비율이 수사기법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논문에서 나타나는 수사학적 특징들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양적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하되 질적인 방법으로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양적인 결과를 보완하였다.

그 다음 각 집단 별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이동마디와 단계, 하위 단계는 어떤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하여 각 이동마디, 단계 그리고 하위단계의 사용유무, 사용분포 및 규칙성 등에 있어서의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공학 학술지 논문의 서론에서 나타나는 수사학적 구조의 특징을 집단별로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동마디의 수, 이동마디의 사용유무에 대한 양적인 결과를 분석하고 이동마디의 사용 순서나 반복적인 패턴을 찾는 질적인 분석을 병행하여 논문의 서론이 어떠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두 집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원어민 저자와 한국인 저자가 학술적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한 수사학적 구조를 보이는지 관찰하였다.

한편 이동마디는 문장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하나의 문장이 어떤 이동마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할 때는 형태보다는 언어적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두라고 하는 Bhatia(1993)의 이론을 따랐다. 이러한 이론적인 기준을 통해 이동마디를 분류하였으나 한 문장 내에서도 복문의 경우, 의미에 따라 이동마디가 여럿으로 나누어지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 경우는 주절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전체적인 이동마디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대체적인 서론이 이동마디 1, 2, 3을 갖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모든 논문이 이동마디 1-이동마디 2-이동마디 3의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다. 이동마디의 순서가 바뀌거나 일정한 이동마디 구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어떠한 패턴을 이루는 서론도 다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이동마디 안에 다른 이동마디가 일부 포함되어 내포된 형태를 보이는 이동마디도 존재했다.

M1-M1-M1-M2-M1-M1-M1-.....

내포된 형태는 위와 같은 구조를 보이는데 M1안에 M2가 내포되어 있는 형태로서 형식과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내용상으로는 이동마디 1 ‘연구영역 확립하기’ 문장들의 사이에 이동마디 2 ‘연구의 정당성 확립하기’의 형식을 가진 문장이 나타난다. 이러한 내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연구 이론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다가 저자가 보충 설명을 위해 자신의 연구도 동일한 이론에 따라 진행했음을 밝힌다면 이동마디의 구조는 ‘M1-M1-M3-M1-M1’의 형태가 되며 M3이 M1에 내포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수사학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의 이동마디는 또 다른 이동마디에 내포될 수 있다.

이동마디 패턴의 반복이나 내포는 서론의 길이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서론의 경우 문장의 수도 그만큼 적어서 이동마디의 반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길이가 긴 서론의 경우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하나의 이동마디에 다른 이동마디가 내포되는 경우도 다수 관찰되었다.

한편 이동마디 1, 2, 3의 사용 빈도 순위는 원어민 저자와 한국인 저자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영어권 저자 논문에서 이동마디의 분포 구조는 M1(474) > M3(223) > M2(127)였으며,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분포 구조는 M1(226) > M3(113) > M2(83)으로 전체적인 이동마디의 수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사용상의 분포 구조는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각 이동마디 내의 단계와 하위단계를 분석함으로써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가 사용하는 수사구조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부터 원어민 저자와 한국인 저자 각 집단의 논문 서론의 이동마디와 단계 및 하위 단계의 사용상의 배열, 분포 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비교할 것이다. 본 장에 표기된 M1, M2, M3는 각각 이동마디 1, 이동마디 2, 이동마디 3을 나타내며 S1은 단계 1을, S1*1은 하위단계 1을 나타낸다. 기타단

계와 하위단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였다.

3.1. 영어권 저자 논문

3.1.1. 이동마디의 배열 구조

표6. 영어권 저자 논문의 전체 이동마디의 묶음 배열 구조

논문번호	이동마디 묶음 배열 구조	이동 마디1 (M1)	이동 마디2 (M2)	이동 마디3 (M3)	합계
1	M1-M2-M1-M2-M1-M2-M3	3	3	1	7
2	M1-M3	1	0	1	2
3	M1-M2-M3	1	1	1	3
4	M1(M2)-M3	1	(1)	1	2(1)
5	M1-M3	1	0	1	2
6	M1-M3-M1-M3-M1-M2	3	1	2	6
7	M1-M2-M1-M2-M1-M2-M1-M3	4	3	1	8
8	M1-M2-M3-M1-M3(M2)	2	1(1)	2	5(1)
9	M1-M2-M1-M2(M1)-M3	2(1)	2	1	5(1)
10	M1-M2-M1-M2-M1-M2-M1-M2-M3	4	4	1	9
11	M1-M2-M1-M2-M1-M2-M3	3	3	1	7
12	M1-M2-M3	1	1	1	3
13	M1-M2-M1-M2-M1-M2(M3)-M1-M2 -M1-M2-M1-M2-M1-M2-M1-M2-M 1-M3	9	8	1(1)	18(1)
14	M1-M2-M1-M2-M1-M3	3	2	1	6
15	M1-M2-M1-M2-M1-M2-M3	3	3	1	7
16	M1-M3	1	0	1	2
17	M1-M2-M3	1	1	1	3

18	M1(M3)-M2-M1-M2(M3)-M1-M3(M2)-M2-M3-M2-M3	3	4(1)	3(2)	10(3)
19	M1-M2-M1-M3	2	1	1	4
20	M1-M2-M3	1	1	1	3
21	M1-M2-M3	1	1	1	3
22	M1-M2-M3	1	1	1	3
23	M1-M2-M1-M2-M1-M3	3	2	1	6
24	M1-M2-M1-M2-M3	2	2	1	5
25	M1-M2-M3	1	1	1	3
26	M1-M2-M3	1	1	1	3
27	M1-M3	1	0	1	2
28	M1-M3	1	0	1	2
29	M1-M2-M1-M2-M3	2	2	1	5
30	M1-M2-M3	1	1	1	3

<표6>은 서론의 각 문장을 이동마디로 분류하였을 때 볼 수 있는 이동마디들을 같은 이동마디는 묶음으로 간주하여 배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문장단위로 이동마디를 따져 같은 이동마디가 연속 될 때에는 하나의 집합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집합을 M1, M2, M3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30개의 논문을 분류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동마디 묶음의 배열을 알아봄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동마디와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이동마디를 구분하여 이동마디의 사용유무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동마디 묶음의 배열 구조를 표로 나타낸 결과 각각의 논문은 고유의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반복적인 배열 구조의 패턴을 발견하였다. 각 자료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wales의 CARS 모형의 가장 일반적인 배열 구조인 M1-M2-M3을 따르는 논문은 3번, 12번, 17번, 20번, 21번, 22번, 25번, 26번, 30번 9개로 내포되는 이동마디는 없었다. 그러나 같은 배열 구조 내에서도 개별 이동마디 1,

2, 3의 분포에는 차이가 있었다. 3번 논문의 경우 이동마디 1이 19개, 이동마디 2가 8개, 이동마디 3이 4개로 다른 대부분의 논문에서 나타난 M1과 M3의 비율이 높고 M2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성과는 차이를 보였다. 12번 논문은 이동마디 1이 31개, 이동마디 2가 1개 이동마디 3이 3개로 M1과 M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7번 논문도 이동마디 1이 26개, 이동마디 2가 2개, 이동마디 3이 4개로 M1과 M3의 비율이 높은 일반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20번 논문의 분포이다. 20번 논문은 이동마디 1이 8개, 이동마디 2가 3개, 이동마디 3이 14개로서 마찬가지로 M1과 M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논문들은 M1과 M3 가운데 M1의 비율이 대부분 높은 반면 20번 논문은 M1-M2-M3 배열 구조를 보이는 논문에서는 유일하게 M3의 비율이 M1의 비율을 앞섰다. 21번 논문은 이동마디 1이 8개, 이동마디 2가 2개, 이동마디 3이 1개로 M2와 M3이 1개 차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2번 논문은 이동마디 1이 19개, 이동마디 2가 3개, 이동마디 3이 5개로 역시 M1과 M3의 비율이 높았다. 25번 논문의 경우 이동마디 1이 9개, 이동마디 2와 3이 6개로 M2와 M3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26번 논문은 이동마디 1이 8개, 이동마디 2가 3개, 이동마디 3이 2개로 M1의 수가 가장 많고 M2가 M3보다 1개 더 많은 수를 차지했다. 30번 논문의 경우 이동마디 1이 19개, 이동마디 2가 1개, 이동마디 3이 9개로 M1과 M3의 비율이 높은 일반적인 구조를 띠었다.

그 밖의 논문들은 기본적인 배열 구조인 M1-M2-M3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났다. 구조표에서 나타나듯이 M1-M2-M3의 순서는 바뀌지 않고 일정 이동마디가 변형되어 반복되어 순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마디 1, 2, 3의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하나의 이동마디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 두 문장단위로 이동마디가 반복되는 형태가 너무 잦아 이동마디의 배열 구조를 따지기 애매한 경우와 기본 구조

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어 규칙성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먼저, 특정한 이동마디들의 구조가 반복되어 순환하는 논문들의 집합이 관찰되었는데 1번, 7번, 9번, 10번, 11번, 14번, 15번, 23번, 24번, 29번 논문의 경우 ‘M1-M2’ 배열이 한 번 이상 반복되어 순환된 후 M3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10번 논문을 살펴보면 ‘M1-M2-M1-M2-M1-M2-M1-M2-M3’으로 여러 가지의 선행연구에 대해 언급하고 각각의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지적 한 후 마지막에 자신의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형태의 논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논문이 전체 논문 30개 중 10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는데 영어권 저자들이 선호하는 이동마디 구조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M1-M2-M3’를 바탕으로 하되 M1-M2 부분이 반복되어 순환하는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세세히 지적하여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당성을 더 확고히 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뿐만 아니라 배경지식과 연구 영역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구 분야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의 논문들은 앞서 언급한 3번, 12번, 17번, 20번, 21번, 22번, 25번, 26번, 30번 논문으로 CARS 모형에서 제시한 이동마디 배열 구조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편 비슷한 맥락으로 살펴보았을 때, 계속해서 ‘M1-M2’ 배열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이동마디 1, 2, 3 중 일부만 반복되거나 삽입되는 구조를 가진 논문이 발견되었다. 이는 18번, 19번 논문으로서 18번 논문의 전체적인 배열구조는 ‘M1(M3)-M2-M1-M2(M3)-M1-M3(M2)-M2-M3-M2-M3’으로 규칙성을 다소 찾기 힘든 애매한 구조였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해보면 내포된 문장을 배재하고 앞부분은 ‘M1-M2-M1-M2-M1-M3-...’으로 앞서 언급한 ‘M1-M2’의 배열이 순환하다가 M2-M3 배열이 두 번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앞부분의 배열에서는 연구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기술하고(M1), 그러한 연구방법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의 사례와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한 후(M2),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진행된 자신의 연구에 대해 언급한다(M3). 다음으로 저자는 또다시 전형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한 점들이 있었는지 강조하고(M2) 본 연구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여 차별점을 둘 것인지를 기술하는(M3) 양상을 보인다. 한편 19번 논문의 배열구조는 ‘M1-M2-M1-M3’으로서, M1-M2-M3의 기본 배열을 기초로 하여 기술하다가 본 연구로 들어가기 전에 해당 연구 영역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서술하여 현행 연구의 접근법을 강조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자가 자신의 수사학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 이상의 이동마디 배열을 반복하는 형태는 빈번히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주제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선행연구 사례와 한계점을 예로 들고(M2의 반복) 때로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언급하다가(M3) 연구 지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M1)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저자가 중요시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변형 형태가 반복될 수 있다.

다음으로 6번 논문의 경우 ‘M1-M3-M1-M3-M1-M2’로서 기본구조인 M1-M2-M3가 순서대로 나타나지 않고 배열순서가 바뀐 양상을 보였다. 초반에는 과거의 연구에 대한 정보와 저자 자신의 연구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후반부에 다시 과거에 대한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기술하며 그 한계 점을 지적하고 현재의 연구에 대한 정당성을 좀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배열구조는 세 개의 이동마디 중 하나의 이동마디가 결여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에서 주목할 점은 모든 논문에서 이동마디 1과 이동마디 3은 반드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즉, 모든 서론이 이동마디 1 ‘연

구영역 확립하기'와 이동마디 3'본 연구 제시하기'는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이동마디 2' 연구의 정당성 확립하기'는 빠진 형태의 논문이 관찰되었다. 2번, 4번, 5번, 16번, 27번, 28번 논문이 'M1-M3'의 배열구조를 띠었다. 이중 4번 논문은 'M1(M2)-M3' 구조로서 M1의 내용 안에 M2의 형식을 가진 문장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 내포된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선행연구에 대한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연구대상이 되는 장치의 다양한 변형 형태가 가진 선천적인 비효율성을 언급한 것이므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의 다른 4개의 논문들은 모두 이동마디 2 '연구의 정당성 확립하기'가 완전히 결여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저자가 연구영역의 중요성을 밝히거나 선행연구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제기하면서 본 연구의 정당성을 밝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은 예라고 볼 수 있다.

3.1.2. 영어권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구성

표7. 영어권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별 문장 구성

논문번호	이동마디1	이동마디2	이동마디3	합계
1	21	7	3	31
2	18	0	6	24
3	19	8	4	31
4	12	1	15	28
5	4	0	1	5
6	11	2	8	21
7	23	5	6	34
8	17	2	22	41
9	16	2	5	23
10	13	14	10	37

11	24	7	1	32
12	31	1	3	35
13	33	13	11	57
14	16	3	6	25
15	11	10	9	30
16	31	0	4	35
17	26	2	4	32
18	17	12	27	56
19	12	4	10	26
20	8	3	14	25
21	8	2	1	11
22	19	3	5	27
23	9	3	4	16
24	10	8	6	24
25	9	6	6	21
26	8	3	2	13
27	6	0	7	13
28	17	0	7	24
29	6	5	7	18
30	19	1	9	29
합계	474	127	223	824

<표7>은 이동마디 묶음의 집합을 풀어서 각각의 이동마디의 개수를 표로 수치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영어권 저자 논문의 각각의 이동마디의 합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동마디 1이 474개, 이동마디 2가 127개, 이동마디 3이 223개로 이동마디 1이 비교적 많은 수를 보였고, 이동마디 2의 개수가 가장 적었다. 각 이동마디들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824개의 이동

마디 중 87.59%에 해당하는 697개가 이동마디 1과 이동마디 3인 것으로 보아 이동마디 2가 다른 이동마디들과는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개의 논문의 평균 이동마디 수를 분석하고 평균보다 길거나 짧은 이동마디를 가진 논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 논문 당 평균 27.47개의 이동마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논문 중 14개의 논문이 평균보다 긴 이동마디 개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논문은 주로 문장의 수가 많거나 서론의 길이 자체가 긴 경우로 여겨진다. 문장의 수가 많은 경우는 짧은 단문으로 기술하여 복잡한 수사구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저자의 논문으로 생각된다.

30개의 논문이 세 개의 이동마디를 각각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각 이동마디 개수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부등호로 나타내어 제시해보았다. $M1 > M3 > M2$ 의 구조를 가진 논문이 15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M1 > M2 > M3$ 가 8개, $M3 > M1 > M2$ 의 구조가 5개로 나타났다. 또한 $M1 > M2 = M3$ 와 같이 특정 이동마디의 개수가 동일하게 나타난 논문도 1개 있었다. 이와 같이 총 30개의 논문 중 29개의 논문에서 이동마디 1과 이동마디 3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동마디 2의 비중이 다른 이동마디에 비해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특이하게도 $M2 > M1 > M3$ 으로 이동마디 2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논문도 1개 발견되었다. 분포 비율이 높은 이동마디 1과 이동마디 3을 비교할 경우, 이동마디 1의 개수가 많은 논문이 25개로 대체적으로 M1이 M3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논문에서 M1이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그 예로 전체 이동마디 수가 25개로 동일한 14번과 20번 논문을 비교했을 때 14번 논문은 $M1 > M3 > M2$ 의 순서로 이동마디 1, 2, 3의 개수는 각각 16개, 3개, 6개 였으나 20번 논문은 $M3 > M1 > M2$ 의 순으로 이동마디 1, 2, 3이 각각 8개, 3개, 14개로 나타나 모든 논문에

M1>M3>M2 순의 배열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위의 <표7>에서 제시한 30개 논문의 이동마디 구조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영어권 저자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권 저자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일반적인 연구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 주제에 관한 관련 용어나 이론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여 일반적인 연구의 영역을 확립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어 기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연구가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결과를 가지는지, 그러한 결과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언급은 추후의 문제인듯하다. 또한 선행 연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한계점 서술과 같은 다소 공격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자신의 연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과거의 연구와 자신의 연구와의 연결보다는 본인의 연구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

3.1.3. 이동마디 1

표8. 영어권 논문 집단 이동마디 1의 구성

구조	이동마디 수	논문수
M1	474	30

이동마디 1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이동마디 1의 구성에 대해 정리하자면, Swales의 수정 CARS 모형에서 이동마디 1 ‘연구 영역 확립하기’는 별도의 단계가 없이 ‘특수성 증가에 대한 주제의 일반화’라는 하나의 이동마디 자체로 존재한다. 해당 연구 영역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Swales(2004)에 따르면 M1은 모든 논문의 서론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동마디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표8>이 보여주듯

이 영어권 저자 집단의 전체 논문 30개 모두에서 M1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시된 값을 토대로 영어권 저자 논문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권 저자는 과거에 수행되어온 연구에 대한 정보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나 용어의 설명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명한 학술대회 수상 경력이나 학술지 논문에 실린 기록 등 구체적이고 공인된 정보를 언급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3.1.4. 이동마디 2

표9. 영어권 논문 집단 이동마디 2의 하위단계 및 분포

구조	하위단계	논문 수
S1A	82(64.57%)	25
S1B	24(18.9%)	14
S2	21(16.54%)	12
합계	127(100%)	

이동마디 2도 역시 Swales(2004)가 제시한 수정 CARS 모형에 따라 단계를 S1A, S1B, S2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이동마디 2는 S1과 S2라는 2개의 단계로 나누어지며 S1A와 S1B는 S1이라는 단계 내에 하위단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을 전체 이동마디 2의 개수와 단계 및 하위 단계의 개수 및 백분율을 <표9>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동마디 2의 개수는 127개이고 그 중에서 S1A는 64.57%에 해당하는 82개, S1B는 24개로 18.9%를 차지했으며 S2는 21개로 16.54%의 비율을 차지했다. S1A는 전체 논문 30개 중 25개의 논문에서 관찰되었고, S1B는 14개의 논문에서 나타났으며, S2는

12개 논문에서 볼 수 있었다. 하위단계의 절대적인 개수로 보았을 때 S1A, S1B, S2 순이었으며 S1B와 S2는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당 단계가 나타난 논문의 수로 보았을 때도 순서는 S1A, S1B, S2 순이었으며, 이번에도 S1B와 S2가 나타난 논문의 수는 14개와 12개로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해당단계의 빈도수와 나타난 논문의 수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에서 S1B와 S2는 비슷하게 사용되었으며, S1A가 현저히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 알 수 있는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권 저자들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현 논문이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있는지 기술하는 수사기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선행연구에서 알 필요가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거나 현 연구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은 각각 18.9%와 16.54%에 그쳤다.

3.1.5. 이동마디 3

표10. 영어권 논문 집단 이동마디 3의 하위단계 및 분포

구조	하위단계	논문 수
S1	78(35.94%)	30
S2	9(4.15%)	4
S3	1(0.46%)	1
S4	23(10.6%)	11
S5	46(21.2%)	19
S6	4(1.84%)	3
S7	56(25.8%)	13
합계	217(100%)	

위의 <표10>은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을 이동마디 3의 S1, S2, S3, S4, S5, S6, S7, 7개의 단계로 분석한 결과를 수치화 하여 기입한 것이다. 하위 단계의 수는 전체 이동마디 3의 개수에서 각각의 단계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함께 표기하였다.

S1는 78개로 전체 이동마디의 35.94 %를 차지하였고 30개의 전체 논문 모두에서 나타났다. S2는 9개로 4.15%에서 나타났으며 4개의 논문에서 관찰되었다. S3은 단 1개의 논문에서 1개만이 발견되어 0.46%에 그쳤으며, S4는 23개로서 10.6%의 비율을 차지했고 11개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S5는 46개로 21.2%를 기록했고 19개의 논문에서 나타났고 S6는 4개가 3개의 논문에서 발견되어 1.84%였다. S7은 25.8%에 해당하는 56개가 발견되었으며 19개의 논문에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해당 단계의 개수 순으로 나열하면 S1>S7>S5>S4>S2>S6>S3이고, 발견되는 논문의 수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S1>S5>S7>S4>S2>S3이 된다. 따라서 해당단계의 빈도수와 나타난 논문의 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영어권 저자 집단이 선호하는 단계의 양상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나열한 분석 결과는 각각의 단계가 하나의 서론에서 모두 발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단계가 나타난 후 유기적으로 다음의 단계가 나타난다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번, 11번, 21번 논문의 경우 다른 단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필수 단계인 S1만 관찰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주목할 점은 전체 논문 30개 모두에서 S1이 적어도 한 번 이상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동마디 3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이동마디 1과 마찬가지로 Swales(2004)는 수정 CARS 모형에서 이동마디 3의 단계1이 의무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위의 분석 결과가 이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어권 저자들이 이전 연구들

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다가 처음으로 본인들의 해당 연구에 대해 분명하게 소개하는 과정을 논문의 서론을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단계로 여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하고나면 다음으로 연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결론을 밝히거나 해당 논문의 남은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술하는 형태가 빈번히 관찰되었다. 다음으로는 해당 연구의 과정이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히 밝히는 S4가 많은 비율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공학 논문이 특히 실험적 측면을 강조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연구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구 가설이나 이론 및 용어의 정의와 같은 단순한 정보전달을 위한 단계인 S2나 S3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해당연구가 앞으로 어떠한 곳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수치화되지 않은 막연한 기대에 해당하는 언급은 선호하지 않는 수사기법으로 여겨진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영어권 집단의 논문에서 관찰되는 이동마디 3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영어권 저자는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소개하고 연구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며, 해당 연구의 결과를 간결하게 언급하고 논문의 남은 부분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미 알려진 정보에 대해 언급하는 경향은 적었으며 수치화되지 않은 막연한 정보에 대한 언급도 적었다.

3.2. 한국인 저자 논문

3.2.1. 이동마디 배열 구조

표11. 한국인 저자 논문의 전체 이동마디의 묶음 배열 구조

논문번호	이동마디 묶음 배열 구조	이동 마디1 (M1)	이동 마디2 (M2)	이동 마디3 (M3)	합계
1	M1-M2-M3	1	1	1	3
2	M1-M2-M1-M2-M1-M2-M1-M2-M1-M2-M1-M2-M3	6	6	1	13
3	M1-M3	1	0	1	2
4	M1-M2-M1-M2-M3	2	2	1	5
5	M1-M2-M3	1	1	1	3
6	M1-M2-M1-M2-M1-M2-M3	3	3	1	7
7	M1(M2)-M3	1	(1)	1	2(1)
8	M1-M2-M3	1	1	1	3
9	M1-M2-M3	1	1	1	3
10	M1-M2-M3	1	1	1	3
11	M1-M2-M3	1	1	1	3
12	M1-M3	1	0	1	2
13	M1-M2-M3	1	1	1	3
14	M1-M3	1	0	1	2
15	M1-M2-M3	1	1	1	3
16	M1-M2-M3	1	1	1	3
17	M1-M2-M3	1	1	1	3
18	M1-M3	1	0	1	2
19	M1-M2(M3)-M3	1	1	1(1)	3(1)
20	M1-M2-M1-M2-M3	2	2	1	5
21	M1-M2-M1-M2-M3	2	2	1	5
22	M1-M2-M1-M3	2	1	1	4
23	M1-M2-M1-M2-M1-M2-M3	3	3	1	7
24	M1-M2-M1-M2-M3	2	2	1	5
25	M1-M2-M3	1	1	1	3
26	M1-M2-M3	1	1	1	3

27	M1-M2-M3	1	1	1	3
28	M1-M2-M1-M2-M1-M2-M3	3	3	1	7
29	M1-M2-M1-M3	2	1	1	4
30	M1-M2-M1-M2-M3	2	2	1	5

<표11>은 한국인 저자 집단 논문의 이동마디 묶음 집합을 파악하여 배열 구조를 나타낸 표이다. 앞서 표기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동마디 1, 2, 3을 각각 M1, M2, M3로 나타냈다.

한국인 저자 집단의 논문에서 기본 배열 구조인 M1-M2-M3을 따르면서 내포되는 이동마디가 없는 논문은 1번, 5번, 8번, 9번, 10번, 11번, 13번, 15번, 16번, 17번, 25번, 26번, 27번으로 13개가 발견되었다. 이들 논문도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배열구조는 동일했으나 각각의 이동마디 1, 2, 3의 개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같은 배열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된 각 이동마디의 개수가 다르므로 각 저자들의 수사기법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7번 논문의 경우 이동마디 1이 11개, 이동마디 2가 1개, 이동마디 3이 3개로, M1의 개수가 현저히 많았다. 즉, 이 논문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현 연구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25번 논문의 경우는 이동마디 1이 4개, 이동마디 2가 2개, 이동마디 3이 7개로 M3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존 연구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간략히 다루고 현행 연구에 대한 정보를 비중 있게 다루는 수사기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M1-M2-M3의 배열 구조를 가진 논문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M1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M1-M2-M3의 기본 배열구조를 가지면서 하나의 이동마디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이동마디가 내포된 19번 논문과 같은 형태도 발견되었는데, 그 구조는 'M1-M2(M3)-M3'로서 연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동마디 2의 내용을 가

진 문장 가운데 현 연구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형태의 문장이 삽입된 양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한국인 저자 집단에서도 영어권 저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이동마디의 구조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논문들의 집합이 관찰되었다. 22번, 29번 논문은 ‘M1-M2-M1-M3’으로서, M1-M2-M3의 기본 배열을 기초로 하여 기술하다가 본 연구로 들어가기 전에 해당 연구 영역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서술하여 현행 연구의 접근법을 강조하기 위해 M1이 한 번 더 삽입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2번, 4번, 6번, 20번, 21번, 23번, 24번, 28번, 30번 논문은 공통적으로 M1-M2-M3의 기본 배열구조를 가지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서술되는 가운데 M1-M2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순환하는 구조가 다수 발견되었다. Swales(2004)에서 이러한 M1-M2의 순환이 가능하다고 기술한 것에 해당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번 논문의 경우 ‘M1-M2-M1-M2-M1-M2-M1-M2-M1-M2-M1-M2-M3’의 배열 구조로서 M1-M2의 이동마디 구조가 5번 더 반복됨을 알 수 있었다. 4번 논문의 경우 ‘M1-M2-M1-M2-M3’의 배열구조로 M1-M2의 구조가 1번 더 반복되었고, 6번 논문의 경우 ‘M1-M2-M1-M2-M1-M2-M3’로서 M1-M2의 구조가 2번 더 반복됨을 알 수 있다. 2번 논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8개 논문들은 대부분 1회 및 2회 반복됨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특정 이동마디가 반복되어 순환하는 논문 집합을 살펴 보았을 때 한국인 저자 집단의 논문은 M1-M2 구조 외에 다른 이동마디 구조는 반복되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배열 구조는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세 개의 이동마디 중 하나의 이동마디가 결여된 형태이다. 한국인 저자 논문 집단에서도 역시 Swales(2004)의 이론에 따라 모든 논문에서 이동마디

1과 이동마디 3은 필수적으로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결여된 이동마디는 M2에 국한 되었다. 2번, 12번, 14번, 18번 논문이 이동마디 2가 결여된 ‘M1-M3’의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 저자가 과거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고는 있으나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언급하여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보다는 과거의 연구와 연결고리 없이 현 연구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수사기법을 사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때때로 이와 같은 형태는 하나의 이동마디에 특정 이동마디가 내포되기도 하는데 7번 논문의 경우가 이동마디 1에 해당하는 문장 내에 이동마디 2의 형식을 가진 문장이 내포된 ‘M1(M2)-M3’의 배열구조이다.

3.2.2.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구성

표12.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별 문장 구성

논문번호	이동마디1	이동마디2	이동마디3	합계
1	5	6	1	12
2	9	8	2	19
3	7	0	8	15
4	8	2	6	16
5	2	5	4	11
6	6	9	1	16
7	5	1	7	13
8	8	5	1	14
9	7	2	3	12
10	6	2	5	13
11	2	3	3	8
12	13	0	2	15
13	6	1	1	8
14	9	0	6	15

15	8	4	5	17
16	7	1	3	11
17	11	1	3	15
18	9	0	1	10
19	7	4	11	22
20	13	3	2	18
21	3	5	5	13
22	16	1	5	22
23	9	5	3	17
24	10	2	2	14
25	4	2	7	13
26	5	2	5	12
27	7	1	1	9
28	6	5	5	16
29	8	1	2	11
30	10	2	3	15
합계	226	83	113	422

<표12>는 <표6>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저자 집단 논문의 이동마디 묶음 집합을 풀어서 각각의 이동마디의 개수를 나타낸 표이다. 한국인 저자 논문의 전체 이동마디의 개수 및 전체 이동마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어 선호되는 이동마디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수는 총 422개였다. 이 중에서 이동마디 1이 226개로 53.55%를 차지했고, 이동마디 2가 83개로 19.67%였으며 이동마디 3은 113개로 26.78%에 했다. 한국인 저자의 논문도 영어권과 마찬가지로 이동마디 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동마디 3이 뒤를 이었으며 이동마디 2의 비율은 가장 낮았다.

30개 논문의 평균 이동마디 수를 분석하고 평균보다 많은 이동마디를 가진 논문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한 논문 당 평균 14.06개의 이동마디를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보다 많은 이동마디를 가지는 논문은 전체 30개 논문 중에서 14개로 나타났다.

한국인 저자 30개의 논문이 세 개의 이동마디를 각각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마디의 개수를 기준으로 높은 것부터 차례로 제시하면 $M1>M3>M2$ 의 구조를 가진 논문이 12개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서는 영어권 저자의 논문과 달리 아주 다양한 구조가 나타났고 $M1>M3>M2$ 구조에 해당하는 12개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구조에 논문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2번, 8번, 20번, 23번 4개의 논문이 $M1>M2>M3$ 의 양상을 보였고, 3번, 7번, 19번, 25번 4개의 논문은 $M3>M1>M2$ 의 구조로 분류될 수 있었다. 13번, 24번, 27번, 28번과 같이 이동마디 1의 개수가 많고 이동마디 2와 3의 개수는 동일한 $M1>M2=M3$ 의 구조에 해당하는 논문도 4개 발견되었다. 1번, 6번 논문과 같이 $M2>M1>M3$ 구조도 2개 있었으며 이동마디 2와 이동마디 3의 개수가 같은 $M2=M3>M1$ 의 형태도 11번, 21번 논문에서 관찰되었다. $M2>M3>M1$ 구조와 $M1=M3>M2$ 구조도 각각 1개씩 발견되었다. 따라서 한국인 저자 집단의 논문에서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 구조보다 훨씬 다양한 구조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한국인 저자들의 논문에 대한 특징을 종합해보면 전체 이동마디의 개수 비율을 따질 경우에는 이동마디 1과 3의 비율이 이동마디 2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각각의 논문에 그러한 규칙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존재했다. 앞서 언급한 영어권 저자들의 논문에서 수사기법상의 어떠한 경향성이 있었다면 한국인 저자들의 논문에는 이렇다 할 뚜렷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고 저자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 이동마디를 각기 다르게 이용하여 기술하였다고 여겨진다.

3.2.3. 이동마디 1

표13. 한국인 논문 집단 이동마디 1의 구성

구조	이동마디 수	논문수
M1	226	3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 저자의 이동마디 1도 마찬가지로 수정 CARS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하위단계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이동마디 자체로 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인 저자 집단의 논문에서 나타난 이동마디 1의 개수는 총 226개였다. Swales(2004)는 이동마디 1이 모든 논문의 서론에서 나타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 바 있는데 해당 집단의 논문 30개 모두에서 M1이 나타났으므로 한국인 저자가 작성한 논문도 이러한 이론에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3.2.4. 이동마디 2

표14. 한국인 논문 집단 이동마디 2의 하위단계 및 분포

구조	하위단계	논문 수
S1A	45(56.96%)	22
S1B	14(17.72%)	9
S2	24(30.38%)	14
합계	79(100%)	

한국인 저자 논문에서 발견된 이동마디 2를 S1A, S1B, S2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개수와 백분율을 <표14>에 나타내었다. 해당 집단에서 나타난 이동마디 2의 개수는 총 79개이고 그 중에서 S1A는 56.96%에 해당하는 45개, S1B는 14개로 17.72%를 차지했으며 S2는 24개로 30.38%의 비율을 차

지했다. S1A가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전체 논문 중 22개의 논문에서 발견되었다. 다음으로는 S2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4개의 논문에서 볼 수 있었다. S1B는 사용 비율도 가장 낮았으며 9개의 논문에서 관찰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인 저자가 이동마디 2를 사용할 때에 선호하는 수사기법 상의 특징을 유추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인 저자는 주로 과거의 연구와 자신의 현 연구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입증하고 동시에 현 연구가 어떠한 점에서 필요한지 정당성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3.2.5. 이동마디 3

표15. 한국인 논문 집단 이동마디 3의 하위단계 및 분포

구조	하위단계	논문 수
S1	54(46.55%)	30
S2	0	0
S3	0	0
S4	35(30.17%)	17
S5	15(12.93%)	12
S6	1(0.86%)	1
S7	11(9.48%)	3
합계	116(100%)	

<표15>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저자 집단에서 사용된 이동마디의 총 개수는 116개였다. 전체 이동마디 3의 개수를 기준으로 S1, S2, S3, S4, S5, S6, S7, 7개의 단계 각각이 어떠한 비율로 전체 논문에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S1은 54개로 46.55%였으며,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

과 마찬가지로 전체 논문 30개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S2와 S3는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단계는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은 단계이지만 한국인 저자 집단의 논문에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S4는 17개의 논문에서 35개가 발견되어 30.17%를 차지했고, S5는 12개의 논문에서 15개가 나타나 12.93%였다. S6는 1개의 논문에서 1개가 발견되어 그 비율은 0.86%에 그쳤다. 마지막 단계인 S7은 11개로 9.48%에 해당했으며 3개의 논문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동마디의 개수 순으로 나열하면 S1>S4>S5>S7>S6>S2=S3이고, 발견된 논문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S1>S4>S5>S7>S6>S2=S3으로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 저자가 이동마디 3에서 선호하는 단계는 일률적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결과가 모든 논문에서 그러한 순서로 나타나는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논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서 포함하는 이동마디 3의 분포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번, 6번, 8번, 13번, 18번, 27번 논문에서는 S1에 해당하는 이동마디 단 한 개만이 존재하는 반면, 3번, 9번, 10번, 15번, 16번, 25번 논문에서는 S1, S4, S5 3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19번, 26번 논문은 S1, S4, S7을 사용하고 있었다. 7번 논문은 S1, S5, S7 3개의 단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3에서는 3개 이상의 단계가 발견된 논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Swales(2004)가 이동마디 3에서 단계 1만이 필수적이고 단계 2, 3, 4는 선택적이며 단계 5, 6, 7은 몇몇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단계들을 사용할 의무는 없으나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단계만이 사용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영어권 저자의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저자 집단의 논문역시 30개 모두에서

S1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어를 모국어로써 사용하는 사람이나, 외국어로써 사용하는 사람 모두 이동마디 3에서 자신의 현 연구에 대한 소개를 가장 중요한 단계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3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서론 구성에 관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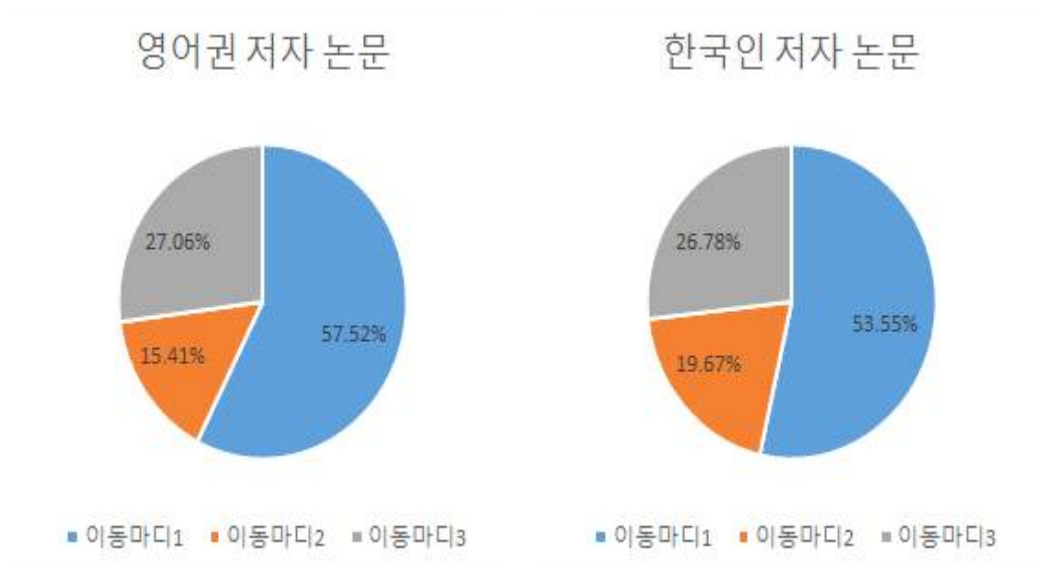


표 16.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논문에서 나타난 이동마디의 비율

이동마디	영어권 저자 논문(%)	한국인 저자 논문(%)	합계
이동마디1	474(57.52%)	226(53.55%)	700(56.18%)
이동마디2	127(15.41%)	83(19.67%)	210(16.85%)
이동마디3	223(27.06%)	113(26.78%)	336(26.97%)
합계	824(100%)	422(100%)	1246(100%)

영어권 저자 논문의 총 이동마디는 824개, 한국인 저자 논문의 경우는 이동마디가 총 422개였다. 이동마디를 분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이동마디의 어느 단계 및 하위 단계에 속하는지를 따져 분석했기 때문에 이동마디의 개수는 문장의 개수와 동일하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이 한국인 저자 집단의 논문에 비해 길이가 더 긴 서론을 가지고 있거나 문장의 수가 더 많은 복잡한 수사 구조를 가진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논문 모두 대체로 가장 일반적인 구조인 M1-M2-M3의 배열 구조를 띄고 있었으나 모든 논문이 획일적으로 이 배열을 따르지는 않았다. 두 집단 모두 특정 이동마디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의 이동마디 안에 다른 하나의 이동마디가 내포된 구조도 있었으며 하나의 이동마디가 결여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저자가 문장을 기술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이동마디들을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M1-M2-M3 기본 구조의 변형 형태 중에서 특정 이동마디가 반복되는 논문 집합을 살펴보았을 때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형 구조가 나타남과는 달리 한국인 저자 집단의 논문에서는 M1-M2 구조 외에 다른 이동마디 구조는 반복되지 않아 비교적 간단한 배열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영어권 저자의 논문은 논문의 길이가 길고 문장의 수가 많을 때 이러한 일정 이동마디 배열 구조가 반복되었으나 한국인 저자 논문의 경우는 논문의 길이가 짧고 문장의 수가 매우 적을 때에도 특정 이동마디 구조의 반복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는 M1-M2 이동마디 구조를 순환시킴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세세히 지적하여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당성을 더 확고히하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서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단문형태의 한 문장 단위로 이동마디가 바뀌는 경향이 잦다면 모국어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저자에 비해 외국어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저자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여 여러 개의 단문으로 기술함에 따라 복잡한 수사구조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영어권 저자의 논문과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서 예외 없이 모두 해당되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었다. 그것은 두 집단 모두에서 이동마디 1과 이동마디 3은 반드시 하나 이상 나타났고 전체 이동마디 개수를 기준으로 이동마디 2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이동마디 1과 3을 연결하여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드러내고 현 연구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이동마디 2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논문도 다수 존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집단의 저자 모두 논문의 서론에서 기존 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신의 현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동마디 개수와 비율을 살펴볼 때 두 집단의 수사기법 간에는 작은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7. 이동마디 1의 단계 구성

구조	영어권	논문수	한국인	논문수	합계
M1	474	30	226	30	70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wales(2004)에 따르면 이동마디 1은 모든 논문의 서론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하였는데 영어권 저자의 논문과 한국인 저자의 논문 모두에서 M1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두 집단의 저자 모두 해당 연구 영역의 필요성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영역의 이해에 필요한 이론이나 용어를 설명하고 기존 연구에 대한 정보 및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8. 이동마디 2의 단계 구성

구조	영어권	논문 수	한국인	논문 수	합계
S1A	82(64.57%)	25	45(56.96%)	22	127(61.65%)
S1B	24(18.9%)	14	14(17.72%)	9	38(18.45%)
S2	21(16.54%)	12	24(30.38%)	14	45(21.84%)
합계	127(100%)		79(100%)		206(100%)

<표18>에서 보여주듯이 이동마디 2의 사용에 있어서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모두 S1A단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두 집단의 저자가 이동마디 2의 S1A단계를 사용한 비율은 각각 64.57%와 56.96%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선호하는 단계 순으로 나열할 때 가장 많이 선호된 단계는 S1A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마디 2의 전체 단계를 고려하여 선호되는 순서를 나열할 경우 영어권 저자는 S1A>S1B>S2 순으로 단계를 사용하였고, 한국인 저자는 S1A>S2>S1B의 순서로 단계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S1A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들의 두 집단 간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9. 이동마디 3의 단계 구성

구조	영어권	논문 수	한국인	논문 수	합계
S1	78(35.94%)	30	54(46.55%)	30	132(39.63%)
S2	9(4.15%)	4	0	0	9(2.7%)
S3	1(0.46%)	1	0	0	1(0.3%)
S4	23(10.6%)	11	35(30.17%)	17	58(17.42%)
S5	46(21.2%)	19	15(12.93%)	12	21(6.3%)
S6	4(1.84%)	3	1(0.86%)	1	5(1.5%)
S7	56(25.8%)	13	11(9.48%)	3	67(20.12%)
합계	217(100%)		116(100%)		333(100%)

이동마디 3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모두 S1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눈에 띄게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S2와 S3의 사용에 있다. S2와 S3 단계는 영어권 저자 집단의 논문에서도 가장 낮은 사용량을 보였지만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S2는 현 연구의 초점 또는 가설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S3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정보는 현행 연구에만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 연구 영역 전반적으로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대체로 이동마디 1에서 이미 주어진 정보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동마디 3에 이르기까지 중복하여 기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 밖의 단계들은 사용 개수 상에 작은 차이는 존재했으나 선호되는 순서로 나열했을 때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가 영어로 작성한 공학 논문의 서론을 Swales의 수정 CARS 모형을 토대로 각기 따로 분석하여 각 집단에 나타난 수사학적 구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어권 저자가 영어로 작성한 공학 논문 30개, 한국인 저자가 영어로 작성한 공학 논문 30개를 수집하여 Swales(2004)의 수정 CARS 모형을 적용하여 수집한 학술지 논문의 서론에 나타나는 수사기법 상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각 집단의 논문들은 짧게는 1페이지부터 길게는 5페이지까지 다양한 길이가 있었는데 이렇듯 작성자도 길이도 다른 논문의 서론들을 위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논문이 Swales가 제안한 CARS 모형의 일반적인 구조인 이동마디 1-이동마디 2-이동마디 3의 형태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영어권 저자의 논문과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서 각각 9개와 13개의 논문이 기본적인 배열 구조인 M1-M2-M3의 형태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 밖의 논문에서는 다양한 배열 형태가 나타났다. M1-M2-M3의 순서는 바뀌지 않고 일정 이동마디가 반복되어 순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마디 1, 2, 3의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하나의 이동마디가 다른 이동마디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와 특정 이동마디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 두 문장단위로 이동마디가 반복되는 형태가 너무 잦아 배열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와 기본 구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어 규칙성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두 집단의 모든 논문에서 이동마디 1과 3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있었는데 이는 Swales(2004)가 M1과 M3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라고 서술한 것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에서 이동마디 2는 완전히 제외된 논문

이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영어권 저자 논문과 한국인 저자 논문 모두에서 이동마디 2의 경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어권 저자의 논문과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서 각각의 이동마디의 비율을 기준으로 개수가 많은 이동마디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M1 > M3 > M2$ 의 순서로 나타났다. 양쪽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이동마디 2의 비율이 가장 낮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어권 저자의 논문과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서 사용된 전체 이동마디의 절대적인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영어권 저자의 논문이 2배에 가까운 이동마디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의 문장 단위로 이동마디를 적용하여 분석된 결과이므로 영어권 저자 논문 서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거나, 또는 구조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경우 영어권 저자의 논문 서론의 이동마디 구조가 수사학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별 논문이 아니라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관점에서 두 집단을 해석해본다면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모두 이동마디 1 ‘연구영역 확립하기’에 가장 많은 문장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연구영역의 이해에 필요한 이론이나 용어를 설명하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존 연구에 대한 정보 및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한 경우이고 각각의 개별적인 논문의 측면에서 볼 경우 자신의 현재 연구에 대한 기본 정보와 결과에 대해 중점을 두어 서술하는 논문도 많았고, 심지어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가장 많이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현 연구에 대한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논문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영어권 저자 집단과 한국인 저자 집단 모두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국가나 모국어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Eggington(1987)과 Kaplan(1996)은 동양인들의 영어 텍스트는 주제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예들러 비직선적으로 전개하는 사고 양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동마디 1의 사용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모두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논문 작성에 초점을 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한국인 저자의 논문은 영어권 저자의 논문에 비해 이동마디 2가 결여된 형태가 더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한국인 저자가 과거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고는 있으나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언급하여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보다는 과거의 연구와 연결고리 없이 현 연구 자체에만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권 저자의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M2가 없는 논문이 발견되었으므로 한국인 저자만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동마디 2와 3의 하위단계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선호되는 단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동마디 2의 경우 해당 단계의 사용 개수 순으로 나열하면 영어권 저자의 논문은 S1A>S1B>S2 순이었고, 한국인 저자의 논문은 S1A>S2>S1B의 순서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나열하였을 때 이동마디 3의 경우, 영어권 저자 논문의 경우 S1>S7>S5>S4>S6>S2>S3의 순서였으며, 한국인 저자의 논문은 S1>S4>S5>S7>S6>S2=S3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단계 및 하위단계의 사용 선호도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주목할 만한 큰 차이점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구조 및 수사기법 상의 차이보다는 서론의 전체 문장 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Kaplan(1996)은 사고 체계를 반영하는 사용언어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차이는 그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써 사용하는 집단과 외국어로써 사용하는 집단 간의 언

어 능숙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영어권 저자의 논문이 한국인 저자의 논문에 비해 전체 문장의 수가 많았고 그에 따라 서론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길었는데 본 연구에서 수치화하지는 않았으나 문장 당 단어의 수도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영어권 저자가 한국인 저자보다 더 복잡한 담화를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문장 당 단어의 수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어권 저자의 논문과 한국인 저자의 논문 모두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이동마디 상의 수사기법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단계 및 하위단계의 수준에서는 두 집단이 가지는 경향성에 일정 부분 차이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영어 학습자들에게 원어민이 사용하는 수사기법에 부합하는 쓰기 방식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학술적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기대하는 동시에, 특히 공학 관련 학부 및 석사 과정의 학생들의 학술적 영어 글쓰기 교육에 작으나마 교육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결과는 대상이 학술지 논문에 국한되었고 수적으로는 각 집단별로 30개의 한정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므로 한계가 있는 만큼 그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분야의 자료가 좀 더 풍부하게 분석되어 그 결과가 논의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박은선. (2005). *한국어 학위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적 연구: 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영규, 이은하. (2008).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연구 논문 서론의 장르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36, 43-67.
- 이은하, 김영규. (2015). 명시적 장르 규범 교수가 한국어 교육 분야 연구 보고서 장르 서론의 형식적 체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 203-240.
- 최연희. (편). (2009). *영어 쓰기 교육론: 원리와 적용*. 서울: 한국문화사.
- 허미혜, 정소우. (2016). 경영학 영어 논문 서론 수사 구조 비교. *한국언어학회*, 40, 181-199
- Ahmad, K. U. (1997). *Research article introductions in Malay: Rhetoric in an emerging research community*. In A. Duszak (Eds.), *Trends in linguistics: Culture and styles of academic discourse* (pp.139-145). Berlin: Mouton de Gruyter.
- Anthony, L. (1999). *Writing research article introductions in software engineering: How accurate is a standard model*. *IEEE*, 42(1), 38-46.
- Bhatia, V. K. (1993). *Analyzing Genre: Language Use in Professional Settings*. London: Longman.
- Brett, P. (1994). A genre analysis of the Results section of sociology articl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3(1), 47-59.
- Connor, U (1996). *Contrastive rhetor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ress. Connor, U., & Kaplan, R. B. (Eds.). (1987). *Writing across languages: Analysis of L2 text*. Reading, MA: Addison-Wesley.
- Crookes, G. (1986). Towards a validated analysis of scientific structure. *Applied linguistics*, 7, 57-70.
- Dudley-Evans, T., & St. John, M. J. (1998).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ggington, W. C. (1987). Written academic discourse in Korean: Implication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 U. Connor & R. B. Kaplan (Eds.), *Writing across languages: Analysis of L2 text*. Reading, MA: Addison-Wesley.
- Fredrickson, K. M. & Swales, J. (1994). *Competition and discourse community: Introductions from Nysvenska Studier*. In B. Gunnarsson, B. Nordberg, & P. Linell (Eds.), *Text and talk in professional context* (pp. 9-22). Uppsala: ASLA.
- Hopkins, A., & Dudley-Evans, A. (1988). A genre-based investigation of the discussion sections in articles and dissertation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7, 113 - 121.
- Hyland, K.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writing*. Harlow, English: Longman.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Pride & Holmes.
- Kaplan, R. B. (1966). *Cultural thought patterns in intercultural education*. *Language Learning*, 16(1), 1-20.
- Kwan, B. S. C. (2006). *The schematic structure of literature reviews in*

- doctoral theses of applied linguistics*. *Journal of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5(1), 30–55.
- Lee, S. (2000a). *A contrastive rhetorical study of Korean and English research paper introduc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Lee, S. (2000b). A contrastive rhetorical study on Korean and English research paper introductions. *Journal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4(2), 316–336.
- Lopez, G. S. (1982). *Article introduction in Spanish: A study in comparative rhetoric*.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ston at Birmingham, UK.
- Mahwah, NJ: Erlbaum. Dudley–Evans, T. & St. John, M. J. (1998).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13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tridge, B. (1994). Genre analysis and textual boundaries. *Applied Linguistics*, 15(3), 288–299.
- Paltridge, B. (2001). *Genre and the language learning classroom*.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altridge, B., & Starfield, S. (2007). *Thesis and dissertation writing in a second language: A handbook for supervisors*. New York, NY: Routledge.
- Samraj, B. (2002). Introductions in research articles: variations across disciplines. *Journal of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1, 1–17.
- Sheldon, E. (2011). Rhetorical differences in RA introductions written by

- English L1 and L2 and Castilian Spanish L1 Writer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10(4), 238-251.
- Soh, Y. H. (1999). A genre analysis approach to teaching composition i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EAP).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5(1).
- Swales, J. (1981). *Aspects of article introductions. Birmingham: the Language Studies Unit*, University of Aston.
- Swales, J. (1990). *Genr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les, J. & Feake, C. (1994). *Academic writing for graduate students: A course for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wales, J. (1990). *Genre analysis: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les, J. (2001). EAP-related linguistic research: An intellectual history. In J. Flowerdew & M. Peacock (Eds.), *Research perspectives o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pp. 42-5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les, J. (2004). *Research genres: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les, J., & Feak, C. (2004) *Academic writing for graduate students: Essential tasks and skills* (2nd ed.).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BSTRACT

Rhetorical differences in engineering RAIs written by English-speaking writers and Korean writers.

Lee, Jayeo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what rhetorical structures are used in research article introdu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Is) written by Korean writers and compare them with those found in RAIs by native English-speaking writers. The two groups wrote articles on engineering research in English. For the purpose of this thesis, sixty engineering papers published between 2014 and 2016 were analyzed. The data consist of moves and sub-steps. They were analyzed with Swales' revised Create-A-Research-Space (CAR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not every RAI in the two groups followed the basic pattern of Move1-Move2-Move3 proposed by Swales (2004).

Both groups of writers used a variety of move structures to present their purpose in each RAI. The analysis is made up of rhetorical features in each move structure and sub-step. However, there'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 move structures used by the Korean authors and those used by the English-speaking authors. In short, both groups of writers used a similar rhetorical style overall.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ward providing new guidelines for teaching writing to learn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achers of English writing classes can apply these results to helping their students use suitable expressions in their writing.